



■ 르포 / 삼중고 겪는 도내 한우사육농가 가보니...

“줄도산 우려... 올해 최대 고비될 것”

도내 662농가·3만7750마리... 3년 새 3000여마리 늘어 전국 사육두수 정점... 경영비 급등하는데 소값은 폭락

제주지역 한우사육농가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부담과 산지가격 하락 등 잇따른 악재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의 한우사육두수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20~30마리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한우농가의 사육 규모는 662농가·3만7750마리다. 최근 3년 새 3000여마리가 늘었다.

전국 수송까지 가격은 2021년 마리당 455만원에서 올해 3월 305만원으로 21%가량 하락했다. 제주도 역시 동시대비 418만원에서 295만원으로 22% 급락했다. 반면 사료가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0% 넘게 상승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삼다도목장의 양세환 대표는 “서귀포시축협 가족시장에서 지난 15일 임신한 암소 2마리와 수송까지(9월~10월경) 4마리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마리당 300만원으로 비쌌다”며 “이러한 산지가격이라면 소규모 한우농가는 자금 회전을 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990년대초, 제주에 한우를 들여왔던 선도농가로서 이전 비육우 사육 등 45년간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시기도 많지 않았다”며 현장의 암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수소는 비육우로 가격이 싸도 거래가 이뤄지지만 암소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목장에서 만난 서귀포시축협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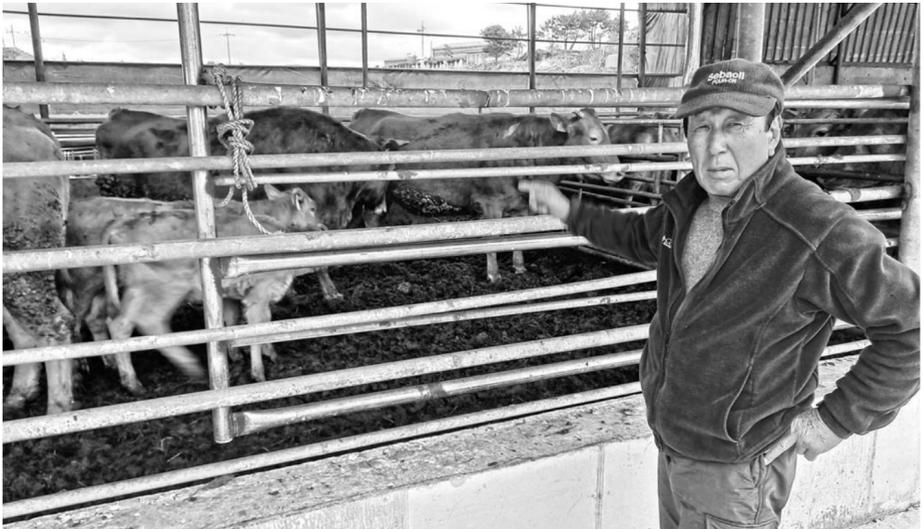
계자도 “번식우농가의 자금 회전을 위해 가족시장에서 매일 몇 마리씩 구입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한우농가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가는 사료값을 내려주고 행정에서도 실질적인 조차료 생산비 지원, (해상)물류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입량 축소와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비롯해 학교·군대 식자재 납품 등의 고급육 소비 촉진

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지역 상인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 제주한우를 집중 매입한다면 한우농가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국의 한우 사육마리수가 358만마리로 정점이 예상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며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암소 자율감축 사업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안덕면 소재 삼다도목장 양세환 대표가 최근 서귀포시축협 가족시장에서 구매한 암소를 가리키며 사료값 부담과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국민권익위 마라도 길고양이 민원 ↑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민원’으로도 나타났다. ‘마라도 고양이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달 제주지역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한 달 민원분석시

스템에 수집된 민원 수와 키워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 민원 발생률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도’였다. 2월에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8048건으로 1월과 비교해 8.9% 늘었다.

민원이 급증한 데는 ‘마라도 고

양이 반출’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가 뽑은 제주 주요 민원 키워드에는 ‘고양이 보호 방안’, ‘마라도 고양이’, ‘동물 보호법 위반’, ‘뽕쇠오리 개체 수’ 등 서로 연관된 단어가 집중됐다.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을 결정한 문화재청은 향한 민원도 급증했다. 문화재청 민원은 1월 161건에서 2월 405건으로 늘어 15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지은기자

서귀포항서 50대 남 숨져

서귀포항에서 물에 빠진 5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17일 서귀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3분쯤 “서귀포항에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도영기자

중1 ‘드림노트북’ 교사들 뿔난 이유

전교조 “납품한 후 관리 등 나몰라라... 교사 부담 커져”

교육청 “4개 지역센터에서 노트북 유지관리 일체 담당”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핵심 공약과 연계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일명 ‘드림노트북’)을 지원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정책협의회, 올 2월 교육감 상견례에서 학교에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했음에도 도교육청이 노트북을 학교에 납품한 한 채 교부와 관리는 담당수 학교에서 전적으로 선생님이 처리하고 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 내 노트북 상시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활동에 실제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노트북 지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면 4개 권역별 지역센터에서 노트북 유지 관리 일체를 담당하는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업은 물론 자기주도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담은 노트북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 중으로 3월 말쯤 중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도교육청이 도내 45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배부를 완료한 노트북은 총 6867대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대 안교육협의회 성명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중학교 1학년들에게도 노트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지난 1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선관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노트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할 경우 등록 대안교육기관 4곳에 총 12대의 기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가정집서 모녀 숨진 채 발견

제주시 한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쯤 제주시 도련동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집 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 등이 발견된 점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 주방용품점 화재

주방용품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00만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서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3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전 9시9분쯤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층 소매점과 2층 단독주택 등이 반소되고 중고 주방용품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4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실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산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식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름	민두름 참두름	가시 없는 민두름, 참두름, 정강두름은 불부터 가늘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릭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동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동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으면서 기가 알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동종 호두, 신동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 묘목상담 : 010-3121-7676 |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영천시 영동읍 화성로25 / 농장 312-3121-7676-91(매일 9시~정돈화)

‘씨리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리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리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점순 나눔(고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2023년 4월 30일 까지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자업등록번호: 18-서귀포-2005-20-01

한라종묘

연락처 : 010-3696-2057